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20일 뉴욕증시는 부진한 경기지표와 악화되는 고용시장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44.99p(5.56%) 떨어진 7,552.29에 장을 마감.

GM과 포드는 각각 3%와 10% 상승 마감. 씨티그룹은 사우디 왕자의 지분확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4.77% 하락.

S&P500 지수는 54.14p(6.71%) 내린 752.44p를 나타내며 1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.30p(5.07%) 내린 1,316.12를 기록.

15일 마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가 2만7,000명 늘어난 54만2,000명을 기록하여 예상치인 50만5,000명을 상회. 1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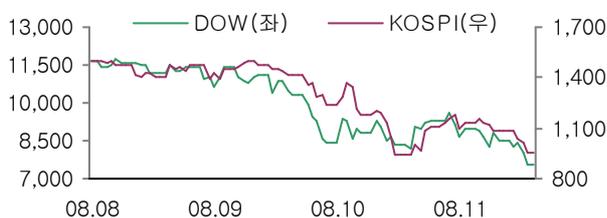
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전월 -37.5에서 하락하여 -39를 기록. 예상치인 -35보다 악화된 수치를 나타내며 9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.

10월 경기선행지수는 0.8% 떨어진 99.6을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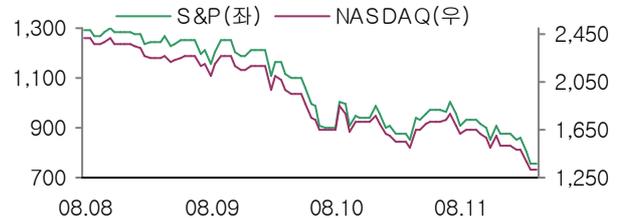
미국 자동차 빅3의 규제법안 합의 실패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폭락한 유가도 경기침체 우려를 확대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7,552.29	-5.56	-14.52	-13.15	-16.40	-33.85	-40.99
S&P(좌)	752.44	-6.71	-17.43	-16.85	-21.21	-40.96	-46.89
NASDAQ(우)	1,316.12	-5.07	-17.57	-18.19	-22.43	-44.91	-48.6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